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인구건/사회



모두가 평등한  
학교는 당연하다!

#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공식 규정화 NOW!

## 학생은 이 학교에서 온전히 존중받고 있나요?

“교수 성폭력 사건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신의 바람,

**‘H교수 사건 이후의 서울대’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인권가이드라인은 교수-학생 간 평등한 관계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학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가 나로서堂堂할 수 있는 서울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서울대의 평등한 구성원입니다.

**인권가이드라인은 ‘제2조 평등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학생대표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사회와 혐오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공식 규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학교를 위해,  
인권 침해 사안 해결의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의 힘을 모아 인권가이드라인을  
서울대의 학칙상 공식 규정으로 세워냅시다.**

### 3-4월

인권가이드라인 공식규정화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뜻 모으기

: 인권가이드라인 전문 홍보 및 안내,  
학칙 반영을 위한 서명운동 등

### 4-5월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하기

: 교수-학생-직원 공동 토론회,  
공동성명 발표 등

### 5-6월

인권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교육부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시민사회 인권단체, 교육단체에  
연대 요청

### 이후

인권가이드라인 공식 규정화 및  
매뉴얼 배포

1. 구성원들의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평의원회 안전 상정 요구
2. 인권가이드라인 공식 규정화 및 배포  
일상에서 인권가이드라인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도  
함께 제작해 구성원에게 배포

ex) 학생에게 학업과 관련 없는 업무  
시키지 않기, 수업 시간에 차별적  
발언 하지 않기 등

새내기와의 즐겁고 평등한 첫 만남을 위한

# 평등한 새맛이 만들기 NOW!

재밌는 새맛이, 인권친화적인 새맛이 -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까?

인권친화적인 새맛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당신!  
NOW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새맛이에서 수많은 단과대와 과/반 학생회가 동참한 장기자랑 FREE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간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며

평등한 공동체를 향해 변화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당당하게 실천한다면 새맛이는 평등하고, 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토론과 합의로 평등한 새맛이를 만들어봅시다

## 하나, 새맛이 인권프로그램 공동제작

12월

각 단과대학 새맛이 담당자들을 통해 단과대별 인권프로그램 현황 파악  
새맛이 인권프로그램에 대한 공론장 마련

1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  
단과대별 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

3월

원하는 단과대에서 자발적 활용

ex) 장기자랑 대체를 위한 공동체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기획, 술을 먹지 않는 학우들을 위한 새터 프로그램 마련

이후

새맛이 이후 평가 토론 진행

## 둘, 저소득층 새터지원사업

단과대별 새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새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본부에 지원금을 요청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편한 캠퍼스를,

# 배리어프리한 서울대 만들기 NOW!

[배리어프리(barrier-free) :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장애인 화장실,  
경사도가 없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건물,  
장애학생 지원사항 항목이 누락된 강의계획서들

## 서울대학교는 '비장애인'만을 위한 학교인가요?

그동안 배리어프리를 말하는 총학생회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NOW는 장애인권 전담기구 '배리어프리 실천단'을 설치하여  
장애가 일상의 장벽이 되지 않는 서울대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 하나, 서울대 배리어프리 공동요구안 실현!

- 총학생회 내에 장애인권 전담기구 '배리어프리 실천단' 설치  
교육권, 이동권, 문화 행사 등 장애인권 관련 정책 연구
- 전 캠퍼스에 걸친 '교내 장애인권 실태조사' 진행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요구안 구체화
- 장애인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  
총학생회-대학본부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장애학생 간담회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 맞이 교내 배리어프리 행진

### 둘, 교내 장애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진행!

- '교내 장애인권 안내서(가제)' 발간, 과/반 단위에 비치  
교내 장애인권 현황,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행사 등을 안내.
- 교내 장애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공간에 인형을 놓아 알리는 '곰인형 사업'
- 장애학생 간담회 확대/홍보

### 셋, 단과대 새터 장애인권 가이드라인 제공

- 새터 장소 선정시 배리어프리 여부 고려,
- 행사 진행시 속기 동반(청각장애) 등 제언
-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배리어프리 새터를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



We are Queer, We are Here!

# 성소수자가 당당한 서울대 만들기 NOW!

지긋지긋한 캠퍼스내 성소수자 혐오 강연,  
왜 다름이 차별이 되는 것일까요?

**차이를 힘으로,  
다양성이 있는 서울대를 위한  
NOW의 제안!**



## 하나, 성소수자 혐오 강연 학내 주최 제지

대학 본부에 혐오 강연 장소 대관 금지를 요구  
혐오 강연이 강행될 경우 강연 반대 피켓 시위 진행

## 둘, 퀴어문화축제 서울대 참가단 모집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대 학우들과 함께 참가단을 구성해 참여  
참가단과 함께 학내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영화상영, 세미나 진행

## 셋, 인권센터,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이수 요구

안전한 서울대 만들기,

# SAFE CAMPUS 프로젝트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사회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범 검거, 사회대 남학생 휴게실 외부인 무단 상주,  
자연대 화장실에서 성폭행 미수사건 발생...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 학교, 무서운 적 없으셨나요?

**캠퍼스 내 '안전'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러도 대답없는 안전벨, 4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겨우 1명?  
우리의 서울대학교는 언제 터질지 모를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을 책임질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1. 학내 물카 정기 점검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내 물카 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 어디를 점검했는지 학생들에게 결과 공유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상시적 점검을 약속받겠습니다.

## 2. 야간 경비 인력 확충

점점 높아가는 '무인경비시스템',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 인력이 없는 야간 캠퍼스는 NO! 야간 경비인력 감축에 반대하고, 충분한 안전 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 3. 학내 안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비상벨, CCTV 등 안전 장치들의 설치 현황과 관리 상태 전수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야간 건물 출입통제 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미비한 건물의 보안을 요구하겠습니다.

## 4. 사위실, 휴게실 S-CARD 카드키 시스템 도입 요구

학생회관, 사범대, 사회대 등 건물에는 사위실, 휴게실에 출입보안시스템이 없습니다. 외부인 출입 차단을 위해 보안키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5. 녹두, 서울대입구, 낙성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자취하는 학우들을 위한 안전 공약! 귀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방법을 조사해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2년이 외롭지 않도록  
**군인권 NOW!**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군 내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조리를 겪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총학생회도 군인 학우들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 군인의 교육권!

군 내 원격수강 가능과목(스누온) 확대  
예비군 결석제 인정제도(현 총학생회에서 실시) 미비점 확인,  
제도 안정화

### 둘, 군내 폭력대응 매뉴얼 알리기

군인권센터 등에서 발간하는 군내 폭력 발생시 대응 방법을  
<병역백서>를 통해 알려, 학우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셋, 군인 전문 상담인력 실태점검 및 홍보

2018년 확충된 대학생활문화원 군인 전담 상담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1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NOW>**



이 학교의 모든 투명인간들을 위하여,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매일 사용하는 강의실, 식당, 화장실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과 올초까지만 해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서울대학교의 직원이 아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제야 서울대 직원이 되었지만, 차별은 여전합니다.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일하고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강요받는 노동자들과  
취업 압박 속에서 경쟁하는 학생들.

우리의 세계는 서로 이어져있습니다.



출처 : NEWSI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NOW는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실·현·방·안

1-2월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자료집 제작, 과/반 배포

3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학생 간담회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학내 청소, 경비, 비학생조교, 식당 등 직종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

4-5월

학내 노동자-학생 연대 사업.

노동절(5.1) 맞이 연대 장터, 비정규직 노동실태 전시/퀴즈/게임 프로그램 등

노동자-학생 연대의 밤 등 교류행사